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다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런 성공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친(親) 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면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르호보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자 남쪽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르호보암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말 할 할 것 없고 왕이라는 지위도 물려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왕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은 주위 여러 나라들의 위협을 잠재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군사적 강국으로 만들어 주위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이러한 다윗이 바로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시대였고 주위 나라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찬란한 영화를 꽃피우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크게 만들어 정금으로 입혀놓을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고(대하 9:17)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 올 정도 였습니다(대하 9:1).

르호보암의 시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르호보암의 남왕국은 나름대로 단단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장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라고 되어있는데 르호보암은 유다 여러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방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들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고 방패와 창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11:11-12). 견고한 성읍에 많은 양식을 저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모여 들었습니다(11:13).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도리어 우상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11:14-15).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이나 르호보암을 도와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11:16-17). 11장29절은 르호보암의 형통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하지만 르호보암의 이러한 번영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2장1절 말씀은 그 원인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비록 그 나라가 나뉘어지기는 하였지마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북왕국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그들은 유다가 견고하게 되도록 르호보암을 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작지만 아주 견고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자신의 세력이 강력해지나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히 백성들도 그 왕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14절에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르호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삭이 올라와 견고하게 쌓아 놓은 유다의 성읍들을 빼앗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12:4).

시삭은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았고 솔로몬의 금 방패들도 빼앗아 갔습니다(12:9). 하는 수없이 르호보암은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궁의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12:10-11). 금 방패로 대비하던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성공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나뉘어지는 위기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남왕국 유다를 잘 정비하고 그 성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는 르호보암의 악한 행실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남색 하는 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오늘 성경은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의 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에게 있던 번영은 르호보암을 범죄하게 하였지만 시삭으로 인한 고난은 르호보암을 겸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를 돌이키셨습니다(12:12). 르호보암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1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얼른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는 자를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이 사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교만과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그 분의 인자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